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광원^{1,2,†}

¹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 ²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kwrhie@hoseo.edu[†])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법률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실시 전에 실험에 잠재되어있는 유해인자를 도출하여 도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제거나 감소,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사고대응기관에 신속한 정보 전달 등으로 사고확대 방지 아주 큰 효과가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실 책임자(교수)가 알아야 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내용과 앞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고찰, 토론하고자 한다.